

## Vannoy 박사 , Samuels, 강의 3

© 2011, Dr. Robert Vannoy 및 Ted Hildebrandt

왕권과 언약이라는 주제에 대한 마지막 강의의 결론에서 언급했듯이 ,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이제 사울이 행한 왕권이 언약적 이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사무엘 상 13장과 사무엘 상 15장에서 검토를 위해 논의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왕권과 언약이라는 주제로 구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은 첫째, 왕권은 백성이 언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이 제정한 왕권은 언약과 일치했습니다. 셋째, 사울이 행한 왕권은 언약적 이상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행한 왕권은 언약적 왕의 이상을 불완전하지만 진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명제 중 세 번째에 도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길갈 에서 열린 언약 갱신 의식에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묘사한 직후의 장입니다 . 우리는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을 당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범죄 때문에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았고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3장 1절은 사울의 통치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10:16에서 사적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10:17-27에서 미스베 에서 제비로 사울이 공개적으로 선출되고 , 사무엘상 11:1-13에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 확정되고, 사무엘상 14:12-25에서 길갈 에서 열린 언약 갱신 의식에서 사울이 즉위 함으로써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공식 통치가 지난 강의에서 논의했던 길갈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상 13장의 첫 구절에서 왕의 통치의 시작을 위한 전형적인 통치 공식이 이 장의 시작 부분에 배치된 것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통치를

위한 통치 공식은 열왕기 상하에서 여러 번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왕이 왕위에 오를 당시의 나이와 통치 기간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3:1의 이 특정 예에서 공식은 숫자 두 개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NIV 번역과 거기에 있는 본문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V 번역은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30세였고,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에 "히브리인에게는 30이 없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통치했다"는 주석이 있고, 40년에서 "히브리인에게는 40년이 없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텍스트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통치의 시작을 소개하는 것은 분명히 통치 공식입니다. 13장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13:1은 14장 마지막에 있는 사울의 통치에 대한 요약과 함께 47-53절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이의 명확한 대조를 묘사하는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4장의 서사에 대한 책갈피와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울이 언약의 왕이라는 이상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3장의 2-7a절에서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 대한 배경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장의 후반부인 7b-15절에서 발견되며, 이는 실제로 이 장의 초점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자신과 아들 요나단의 지휘 아래 두 그룹으로 나뉜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절에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주도권을 잡았고, 게바는 일반적으로 기브아 의 철자로는 결함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이 행동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은 직후에 준 지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7, 8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그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앞 구절인 10장 5절에서 언급한

기브아 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사무엘이 사울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10:7입니다. 사울은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사무엘상 10:8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나보다 먼저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 그러나 내가 네게 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때까지 일곱 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삼촌이 사무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중대한 임무에 대해서도 삼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전차와 용병으로 이루어진 대군을 모아 므마스 에 진을 쳤습니다 (5절).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고 사울이 길갈에서 그들과 합류할 추가 부대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4절).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장면이 묘사된 방식에 불길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게만이 지적했듯이, 이 구절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기술력이 우세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6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위급해서 동굴과 덤불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NIV에서 번역한 대로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길갈에 있는 사울의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요단 강 동쪽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기의 그림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력을 얻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거만한 영에 맞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끈 사무엘상 11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지도력이나 주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이 안전과 보안을 찾기 위해 왕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왕이 있지만 왕권이 확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에서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질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사무엘 상 10:8에서 사무엘이 지시한 대로 길갈로 갔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약속한 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위태로워지자 사울은 사무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마치려고 할 때,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일곱째 날 늦게 도착한 듯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사울에게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맞섰습니다. 그 질문은 강한 반대 의사를 암시했습니다. 사울의 반응은 방어적이었고, 자신의 행동이 의심스럽고 어떤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탈영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임박한 듯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요받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나는 강요당했다”

는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나는 이것을 하도록 강요했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대해 논의하지 않지만 그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다른 통치자를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사무엘은 “당신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켰더라면, 그분은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당신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위협이 심각하고, 군대가 분열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압박해 보이는 전투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하거나 강요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임지게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변명은 주님의 계명보다는 상황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한 그의 실수를 드러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마주친 상황은 놀랍고, 그가 겪은 시험은 심각한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래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왕이 될 것인가? 그는 상황이 어떻든 주님을 온전히 복종하고 신뢰하며 기다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법 위에 두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언약적 왕권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경건한 동기, 즉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또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즉 전투 전에 희생을 바치는 것으로

상쇄되거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 진정한 경건함을 종교적 단어와 종교적 행위와 혼동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말과 종교적 행위가 반드시 주님의 길을 걷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 말과 행위 자체가 사람의 행동의 성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지 여부와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논거를 사용했는데, 이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다시 한 번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그에게 말했듯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복종은 숫양 제물보다 낫습니다" (사무엘하 15:22). 사울은 고든 맥도날드의 소설 중 하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지만 종교에 대한 존중심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진정한 언약의 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날카롭게 초점을 맞춘 다음 장은 사무엘상 15장인데, 사무엘은 사울이 주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맞섰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백성의 왕으로 거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술은 15장 2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까지의 장들에서 사울은 참된 언약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거둬들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부은 후 기브아 로 돌아왔을 때 , 사무엘이 사무엘상 10:7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삼촌이 사무엘이 그에게 한 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10:14-16에서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17-27에 묘사된 미스베 집회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제비로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보급품 사이에 숨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취임한 후, 그는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을 통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13:7-15). 우리가 방금 언급했듯이, 사무엘은 그 범죄에 대해 그를 질책했고, 그의 불순종 때문에 왕조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장인 14장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매우 불리하게 비교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시작한 블레셋과의 그 뒤를 이은 전투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 사울에 대한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떠오릅니다. 저는 14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언급만 하고 싶습니다. 14장에서 사울에 대한 가장 분명한 걱정스러운 점 중 하나는 그가 자기중심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경건한 언어와 종교적 행위로 반복해서 가린 방식입니다. 34절에서 그는 "피가 들어 있는 고기를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35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NIV의 번역에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한 것과는 달리 본문의 아이디어는 그가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단을 완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러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39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한, 비록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죽어야 합니다." 41절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4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에 사용했습니다. "만약 요나단, 네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하게 벌하시기를." 24절은 사울이 그의 군대에 강요한 어리석은

맹세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맹세는 “저녁이 되기 전에,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또한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입니다. 37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내려가겠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 모든 진술과 행동에서 사울은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울은 주님의 참된 종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을 강요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게 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마음속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라 군대에 강요한 어리석은 맹세를 어긴 죄로 죽음을 당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독자에게는 그 반대에 훨씬 더 가까운 현실이 보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실수로 그의 행동이 신의 침묵을 초래한 사람으로 여겼고, 요나단은 훨씬 더 정당하게 그의 아버지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투 성공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요나단은 “내 아버지가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이 꿀을 조금 맛보았을 때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학살은 더 컸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VP Long은 이 장에 대한 논평에서 “따라서 요나단이 블레셋 전초 기지에 대한 대담한 공격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날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압도적인 승리로 약속된 날은 사울이 추격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소 온순하게 끝납니다(46절). 야훼에게 질책을 받고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요나단과 불화가 생긴 사울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해, 심지어 자신의 군대로부터도 소외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이스라엘의 기름부음받은 왕으로서 사울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5장이 시작될 때, 사무엘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왔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맡을 의지를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의 서두 말씀은 사울에게 자신의 기름부음과 주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보내신 자니, 이제 주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한 몇 가지 지시를 따르는데, 사울은 주님의 메시지로써,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서 그에게 제시되는 명확하게 정의된 임무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을 습격하여 행한 일로 그들을 벌하리라. 이제 가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유아,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므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나이산으로 여행하던 중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이 시나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대한 공격이며,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신명기 25장에도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대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어진 지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은 그가 순종했다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글쎄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시에 응했습니다. 그는 유다 남부에 대규모 군대를 모았습니다. 4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케니족은 아말렉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니족은 아말렉족과 달리 정복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임박한 공격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사울의 전투에서의 성공은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이집트의 동쪽 국경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은 그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두고 양과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남겨두었으며,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번역한 대로 “가치가 없거나 품질이 낮은 것”만 죽였고, NIV에서 번역한 대로 “멸시받고 약한 것만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3절에서 묘사한 사무엘이 그에게 준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정한 언약의 왕으로서 기능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0절에서 35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을 마주하고 그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왕으로 거부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읽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고발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섰다”는 표현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NIV는 “그가 나에게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NLT는 “그는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섰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제 말입니다. 이 이중 범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언어가 언약적 왕권의 본질을 정의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야훼를 따르는 것”이며, 국가와 인간 왕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2:14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사무엘 상 12:14b에서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을 때 사무엘이 묘사한 대로 신권 정치를 재구조화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바로 그 일, 즉 “야훼를 따르는” 일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2~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 즉 주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특징지어진 그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찾으러 떠났고, 12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사울이 갈멜에 자신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갔다는 우연한 보고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일어나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것을 12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이 갈멜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자신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고, 결국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비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 후 사울의 심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가 주님의 전투가 아니라 자신의 전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로 여겼고, 그의 업적은 승리 기념비가 확보할 수 있는 종류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약탈품을 나누고 패배한 적의 왕을 전시하고 승리한 왕의 기념비를 공개하는 승전 축하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짧은 단계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울은 더 이상 아말렉에 대한 그릇된 심판의 도구로서 야훼에게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율적인 절대 군주가 되었으며 사실상 반신권적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미리 말함으로써, 서술자들은 사울이 그 후에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왜곡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해 독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사무엘이 마침내 사울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즉 사울이 사무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마디도 말하기 전에 사울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의 진술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그것에서 돌아섰고 내 지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미 약간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기 전에도 사울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순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숨길 것이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사무엘은 사울의 진술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지 14절에서 내가 듣는 양과 염소의 울부짖음과 소의 우는 소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빠르고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동물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15절). 그 대답은 가장 좋은 동물을 살려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화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대답의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울이 동물들이 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울이 자신을 야훼의 추종자들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상대로 사무엘은 진전하고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한 행동을 경건한 말과 언어로 반복적으로 덮으려고 시도하며 그의 마음 깊은 곳이 주님과 맞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받은 왕이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대답했습니다. 17절 주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약탈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특정 임무에 보냈습니다. 18절 가서 이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할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사울에게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장소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19절).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야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NIV). 하지만 나는 주님을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고 아각을 포함하여 그의 군대가 길갈 에서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동물들을 남겨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22, 23절에서 참 종교와 종교적 의식 행위의 구별에 관한 구약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진술 중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22,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기뻐하시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만함은 우상 숭배의 악과 같으니라." 이 진술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여호와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왕으로 거부하셨습니다. 23.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진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29:13에서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있도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했던 메시지와 동일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5:8과 마가복음 7:6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의례주의를 비난한 것은 때때로 너무 강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윤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요점이 아니었고 사무엘의 요점도 아닙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모두 주장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보다 낫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든, 불순종을 가리는 데 사용되는 외적인 경건함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없이 행해지는 종교적 또는 의례적 행위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주님께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 하셨듯이 ,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귀히 여기는 자니, 겸손하고 마음이 통회하며 내 일을 두려워하는 자요,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고, 어린양을 드리는 자는 개 다리를 꺾는 자와 같고, 곡식을 드리는 자는 돼지 피를 드리는 자와 같고, 기념 향을 피우는 자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와 같으니라.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느니라.” 종교인들이 이런 종류의 위선과 종교적 준수로 옮겨가는 경향은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23절에서 반역은 주술만큼 죄악이라고 말했을 때, 그 언어는 사울이 취임할 때 한 말과 흡사합니다. 사무엘상 12:14에서 그가 백성과 사울에게 말했던,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며 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인정함을 보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하면 그의 손이 너희에게 무겁게 임할 것이다.” 사울은 신권정치를 지배하는 조건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가 취임할 때 그 조건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이 왕위에서 해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듯합니다. 사울은 13절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말했지만, 이제 24절에서 “나는 주님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25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데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돌아와서 제가 주님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울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와 함께 가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그가 이전에 한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그는 당신을 왕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사울의 고백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은 왜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의 고백이 일종의 “예, 하지만”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런 다음 그는 이 인정을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굴복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한정시켰습니다(24절).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고백에 사무엘이 자신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데 동행해

달라고 요청한 이중 요청을 추가했습니다. 이 “예, 하지만” 종류의 고백은 밋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무조건 고백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는 비난을 받았을 때 “저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백성을 세는 죄를 지은 후,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말할 때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고백의 문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그의 생각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납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거나 듣는 것과 관련하여, 하지만 사울의 고백에서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음성을 들었고, 대신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로 백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고백에서 역전된 의미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라는 용어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상 12:14에서 왕의 취임식에서 신권 정치의 통치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반드시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의 음성에 순종한 것을 정당화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에서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고, 실제로는 그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자신에게서 백성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책한 데 더해, 자신과 사무엘 사이에 공개적인 단절을 통해 대중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사무엘에게 주님을 경배하는 데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이 거절한 후에 사울이 적어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공경해 달라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요청을 반복했을 때 이것의 진짜 목적은 분명해집니다(30절). 죄의 고백이 대중의 이미지와 명예에 대한 관심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사무엘이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떠나기 시작한 이 경우 고백의 진실성은 의심스럽습니다. 사울은 그를 붙잡으려는 시도나 상징적인 간구의 표시로 그의 옷자락을 찢었지만, 그 사건은 사무엘이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찢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했을 때 찢어진 옷을 사울이 왕국을 잃었다는 상징으로 사용하여 주님께서 사울을 거부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울보다 나은 사람(28절). 왕국이 주어진 사람은 사무엘과 사울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사울보다 나은 사람으로 미리 특징지어진 다윗이었습니다. NIV에서 번역된 31절은 "사무엘은 사울에게로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다"입니다. 사무엘이 마음을 바꾸어 26절에서 사울의 요청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해됩니다. 로버트 올터는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올터는 31절을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돌아섰고 사울은 여호와께 절했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버전의 오래된 주석은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렸음을 나타내지만, 30절에서처럼 "함께 돌아갔다"와 31절에서처럼 "뒤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반의어입니다. 후자는 "포기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11절에서 사울이 "나에게서 돌아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죄하시는 데서 우리가 보는 후대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을 승배에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사울에 대한 거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자 없이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Alter가 이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돌아섰다”로 번역하자고 제안한 것이 히브리어 표현을 더 잘 번역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요청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더 서사적인 맥락에서 더 일관성 있게 나타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사울의 개인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명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지 않은 것을 완성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불렀고, 그는 사울에 대한 주님의 원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를 처형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헤어졌고, 사무엘은 사울의 기브아 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34절). 이것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35절). 그들의 헤어짐은 개인적인 관계의 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왕의 정통성을 지속하는 것을 종식시켰습니다. 그의 실패한 왕권은 사무엘이 그의 통치 초기에 그에게 설명한 대로 직책에 대한 요구 사항에 복종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실패한 역할을 채우기 위해 15:28에 묘사된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소개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무엘상은 사울의 삶의 추락을 묘사하며, 궁극적으로 사무엘상 31장에서 자살로 끝납니다. 동시에 다윗이 많은 어려운 경험 속에서 왕위에 오르는 모습도 묘사하는데, 그는 사울이 여러 번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 즉 사울을 대적하여 손을 드는 것을 꾸준히 거부했습니다.

번역자: Janette Krulick , Hans Miersma , Dan Hurley, Jason Demsey ,  
Cooper Meyer, Heather Hughes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